

교과서를 꿀꺽 삼킨 8급 한자 독후활동지



단어 뜻이 알쏭달쏭 헛갈려. 한글로 똑같이 쓰는데도 문장마다 뜻이 달라.
우리나라 말의 60퍼센트 이상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지.
한글도 아직 어려운데 한자를 어떻게 하냐고?
이 책 한 권이면 8급 한자 완전 정복!

김기만 글, 허정숙 그림 / 쪽수 216쪽 / 판형 180*245mm / 가격 13,500원
발행일 2021년 09월 25일 / 분야 어린이 한자 / 대상 어린이
ISBN 979-11-90024-26-6 (73710)

초등 교과서 예문과 함께 익히는 8급 한자

이 책은 초등 교과서 예문과 함께 8급 한자를 익히는 책입니다. 우리말의 약 60퍼센트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말 학습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한글 옆에 한자가 같이 쓰이지 않은 단어들도 수없이 많이 나와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책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응시한다고 알려진 한국어문화 기준 8급 한자 50자를 교과서 속 낱말들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8급 50자는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단어들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매일 보는 교과서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글로 똑같이 쓰는데도 뜻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익힌다면 8급 한자 자체뿐 아니라 한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어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 쓰기만 한다고 외워지나요?

기존의 초등 한자책은 주로 한자를 반복해 따라 쓰는 빈칸과 문제 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한자를 익힐 경우, 자칫하면 기계적으로 손만 움직여 칸을 채우고 이해는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기존 학습서의 한계를 보완해, 무엇보다 실제 '쓰임'에 초점을 맞춰 한자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한자가 어느 단어에, 어느 상황에 쓰이는 한자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 한자 시험을 공부하라고 기존 문제집을 주면, 한글도 아직 다 못 외웠는데 왜 한자 시험을 쳐야 하는지 모르는 채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어렵죠. 이 책은 읽을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해 학습 과정 자체가 지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자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고 한글은 또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와 한글이 일상에서 어떻게 밀접하게 만나는지, 왜 함께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 책은 한자 1개당 1) 초등학생 '담이'의 생활 속 에피소드, 2) 한자가 활용된 대표적인 초등 교과 단어와 예문, 3) 한자의 소리와 뜻, 4) 한자 손글씨 예시와 TIP, 5) 동음이의 한자를 활용한 옛이야기 만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해되도록 한 구성입니다.

초등학생 담이와 가족 및 친구가 겪는 일들은 초등학생 독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화로, 상황 속 한자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국어 교과서에서 처음 본 단어도 한자를 통해 복습할 수 있고, 컴퓨터 글씨체와는 다른 초등학생의 손글씨체가 재현되어 있어 어떻게 써야 맞고 어떻게 쓰면 틀리는지 섬세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옛이야기를 패러디한 익살맞은 한 쪽 만화를 재미있게 읽는 동안,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한자와 그 쓰임을 익힐 수 있습니다.

글 김기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한문교육을,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반사회를 전공했다. EBS 중학교 한문과 EBSi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문을 검수·검토했다. EBS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형 문항 출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교육부 주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참여하는 등 한문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쓴 책으로는 《초등 한자 만점의 신》,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된 《한자로 보는 서울, 서울에서 배우는 한자》가 있다.

그림 허정숙

한겨레 출판만화 창작학교 과정을 마쳤다. 월간지 <고래가 그랬어>, <콩나무>, <월간 눈>에서 만화를 그렸다. 현재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서 '무슨 말이야?'를 연재하고 있다.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교과연계

국어 3학년 1학기 - 6학년 2학기

문장으로 표현해요

사전은 내 친구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

도덕 4학년 -5학년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공정한 생활

▶ 대상 : 초등학교 3-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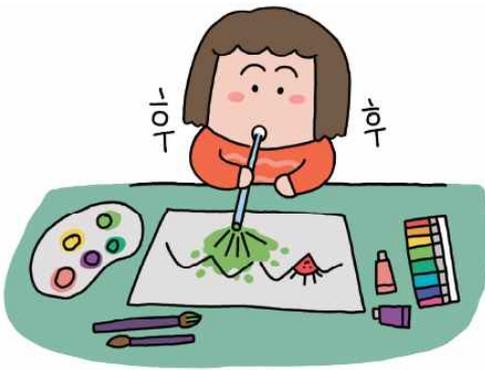
▶ 학습 목표 : 한자는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쓰이지만 새로운 언어로 배우게 되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한문의 상형 과정을 학습하다 보면 한자는 물론 어려운 단어들도 쉽게 이해하고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한글의 친구, 한문을 통해 언어의 형성 과정과 다양한 한자어들을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과 책 내용 확인하기

이번 활동에서 주목할 점

- ▶ 한자의 뜻을 잘 익혔는지 확인해 보기
- ▶ 한자의 획 익히기

1. 담이는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요?



무얼 그릴까?
높은 _을 그려보자

山			

2. 내가 태어난 하루를 뭐라고 부를까요?

_마다
내 생일(日) 같았으면 좋겠어

日			



3. 집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뭐라 할까요?



누가 교실 _을 닫고 나가지 않았지?

門			

4. 담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엄마아빠는 무슨 역할일까요?

우리는 꽃을 품어주는 _이야

土			



5. 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_이야?

옛날에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래



王			

6. 우리는 이곳에서 수학을 배워!

뭔가를 배운다는 건 귀 기울여 듣는 거야

學			



7. 우리는 모두 같은 민족이야.

모두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民			

한자라고 다 같은 한자가 아니야

- 한자의 같은 소리 다른 뜻 -

이번 활동에서 주목할 점

- ▶ 한자의 동음이의어 이해하기
- ▶ 다른 한자어 익히기

1. 다음 보기의 한자와 그 뜻을 맞게 연결해보세요.



너희 형제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이 누구야?

題	▪	제목 제
弟	▪	차레 제
第	▪	아우 제

※ 한자 쓱쓱 알기

“ 이 빵이 하나 남았다는 사실은
우리 형제(兄 _)에게 제일(_ 一) 큰 문제(問 _)야! ”

보기의 뜻을 참고해 빈칸의 맞는 '제'를 써볼까요?

2. 한 해 동안 우리를 가르쳐주신 한자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써주려고 합니다. 편지 속에 담긴 단어 중에서 맞는 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적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한국() 초등학교(初等)에서 선생()님께 한자를 배운지도 일 년(_ _)
 가까이 되었네요.
 저희를 부모()님처럼 잘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벌써 4학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교실() 창문(窓) 너머로 선생님을 뵈게 된다면
 꼭 인사(_ 事)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3학년 6반 담이 올림.

- 보기 -

先 父 室 年
 韓 門 生
 國 學 一 母
 教

※ 한자 쓱쓱 알기

같은 음의 문자들은 모두 같은 한자를 가지고 있어요!

예) 국토(國土) - 토양(土壤)

한 가지 한자로도 몇 개의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자와 친구 되어보기

- 교실을 꿀꺽 삼킨 우리말 한자 -

이번 활동에서 주목할 점

- ▶ 일상에서 한자를 활용해보기
- ▶ 낯설게 느껴질 한문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우리말 한자 카드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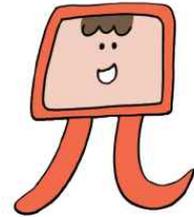
『교과서를 꿀꺽 삼킨 8급 한자』 속 50개의 한자를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아요.

인원

4-6명

준비하기

『교과서를 꿀꺽 삼킨 8급 한자』 책, 포스트잇, 펜



놀이 방법

- ⊖ 각자 포스트잇에 『교과서를 꿀꺽 삼킨 8급 한자』 책에서 배운 한자 10개를 쓰세요.
- ⊖ 포스트잇 뒷면에 한자의 음을 쓰고 포스트잇을 모아 책상에 붙여놓아요.
- ⊖ 친구들과 순서를 정해요.
- ⊖ 첫 번째 순서인 사람이 한자 포스트잇으로 낱말을 만들어 문장을 말해요.
예) 나는 교실(教室)에서 수업을 듣는다.
올해는 2021년(年)이야.
- ⊖ 문장을 말하기 어렵다면 낱말이나 어구를 말해도 좋아요.
예) 형제(兄弟)
- ⊖ 자신이 말한 한자 포스트잇은 가져가고, 미처 말하지 못했다면 저번 순서에 가져갔었던 포스트잇을 다시 책상에 붙여놓아요.
- ⊖ 책상에 포스트잇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가져간 포스트잇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

